

## 번역서 전문서평지 《미메시스》 2000년판 출간

다채로운 기획 특집...읽을거리 풍성해

《미메시스—번역서 가이드 2000》(열린책들)이 나왔다. 《미메시스》는 국내 유일의 번역서 전문 서평지로 1년에 한번 펴내는 연간지다. 이번에 출간된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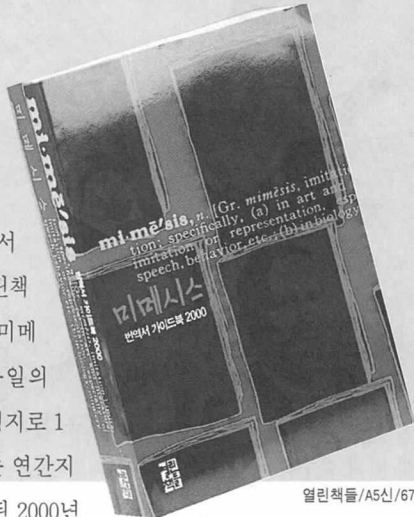
판은 제2호다. 창간호인 1999년판은 짧은 ‘창간사’가 이색적이었다. “서평은 많을수록 좋다”와 “가치있는 책의 번역은 많을수록 좋다”가 각각 한면을 차지했다.

### 지난해 발간된 번역서 다양한 형태로 소개

2000년판의 ‘머리말’ 역시 창간사의 형식을 따랐다. “1,210원 가운데 하나” “좋은 책 한권을 찾는 데 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발행된 1,210권의 번역서를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화제를 모은 책 77권의 서평을 실었고, 7백여권은 분야별로 리뷰를 게재했다. 그밖의 책은 서평 및 리뷰선정 도서들과 함께 서지사항을 수록했다.

이번호는 다채로운 특집을 마련했다. 특집의 내용은 올 상반기 전세계를 휩쓴 이른바 ‘전자책 열풍’을 냉철한 시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출판의 미래’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발행되는 출판전문지 《부흐쿨투어》의 1999년 10월 특집호 <구텐베르크의 미래—21세기의 책과 독서>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출판의 앞날을 내다보는 필자들의 균형잡힌 시각이 돋보인다.

‘올해의 책 / 밀레니엄의 책’은 영국의 주간 서평지 《타임즈 리터러리



열린책들/A5신/672면/12,000원

서플먼트》의 1999년 12월 3일자에 수록된 것이다. 소설가 도리스 레싱·나딘 고디머·줄리안 반즈·에릭 시걸,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와 테리 이글턴, 《독서의 역사》를 지은 알베르토 망구엘, 철학자 리처드 로티 등 쟁쟁한 인사가 설문에 응했다. 레세크 콜라코프스키의 이름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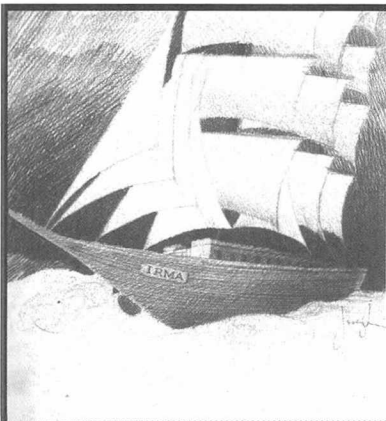
도리스 레싱은 “우리는 요즘의 아이들이 장편은 읽지도 못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대신 쉬운 것들만 찾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썼다. 독서력의 하향평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인가 보다.

### 해외의 출판동향 소개도 주목돼

프랑스 출판인 6명과 대화 역시 쓸쓸한 읽을거리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지난해 마련한 특집 ‘프랑스를 대표하는 6인의 출판인들’에는 평생 책 만드는 일에 바친 노(老) 대가들의 열정이 배어 있다. 독일어·영어·프랑스어권의 출판동향은 모두 저작권 계약을 통해 소개했다.

이밖에 ‘우리 출판사를 대표하는 한권의 책’과 ‘1999년 번역서와 한국 번역출판의 문제점’도 공들인 기획이다. 특히,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는 우리나라 근대 출판 1세기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백여곳의 출판사에 설문지를 보냈는데, 네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응답을 주지 않은 출판사가 절반을 넘었다. 98개 출판사를 대표하는 책의 저자(편·역자), 초판발행 연도, 증쇄현황, 총판매부수 등과 출판사가 제공한 선정 이유를 함께 실었다.

번역가 윤희기씨는 “이런 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번역서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 번역가의 양성과 번역학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번역문화가 성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성일 기자



###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39

## 마지막 해적

리아 카리니 알리만디 지음/조셉 파루자 맥케온 그림/김홍래 옮김/208면/6000원

스웨덴의 바닷가 마을 팔피에서 잉그마르와 닐스는 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진 것으로 1차 세계 대전중에 독일 군함 ‘바다의 독수리’ 호가 겪었던 재미있고도 의미 깊은 모험 이야기이다. 총과 대포를 쏘고 사람을 해치는 해적이야기가 뭐가 그리 재미있을지 들여다보자. 적의 군함이 나타나면 ‘바다의 독수리’ 호는 ‘이르마’라는 노르웨이 상선으로, 슈미트 수병은 아름다운 안네트 부인으로, 펠릭스 폰 루크너 백작은 크누드센 함장으로 재빠르게 변장을 한다. 물론 전쟁중이니가 만나는 적국의 배들은 모조리 침몰시켰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해치지 않고 모두 구해내서는 ‘이르마’ 호에서 함께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카나카 섬에서 해적 마을을 만들기까지 했다. 훗날 루크너 백작은 히틀러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애국심’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간 백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잉그마르와 닐스는 마음이 부쩍 자라게 된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8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